

**SPECIAL FEATURE ART LESSONS**

August, 2017 | 이가진 기자

page 1 of 4

**SPECIAL FEATURE**



**ART LESSONS**

박지혜 &lt;완벽하게 쓸모없는&gt; 2016 롤링시계 33×12×8.6cm



## 미술 수업

배움에는 끝이 없다지만, 불안감 때문일까. 가끔은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직업을 갖고, 좌충우돌하며 한 분야를 나름대로 깨우치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어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임과 마찬가지로, 좌충우돌까진 겨우겨우 한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대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미술계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생태계에선 별다른 인연 없이 배움을 구하는 일이, 반대로 누굴 가르치는 것도 녹록찮다. 학교를 떠난 후에는 더더욱 기회가 적다. 그렇기에 예술을 체득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전시는 비평이든 단 몇 줄의 감상이든 누군가의 피드백이 고프다는 이들이 많다.

공리 끝에 마련했다. 말 그대로 미술 수업, 작가, 비평가, 기획자 등 미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지 들여보고자 했다. 멘토링이라는 말은 너무 기계적이다 싶었다. 후배와 선배란 말에도 이미 위계나 어찌가 있을지 모르나, 말 그대로 같은 분야에서 앞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선배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우선 신진 작가, 기획자, 비평가부터 물색했다. 조건은 데뷔 3년 미만으로 최근 획기적인 활동을 선보인 인물을 위주로 추천받았다. 선정된 선배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작업을 어떻게 다음을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최대(?) 선배를 짚었다. 작업(작품, 전시, 기획안, 비평문 등)을 내보이고 그에 관해서만 평가를 받는 방식도 고려되었으나, 그보다 직업적인 고민과 갖춰야 할 태도 등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 기획의 범위를 유동적으로 열어두었다. 그렇게 최대한 제약도, 조건도 달지 않고 다섯 쌍의 만남을 주선했다.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간 품었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선배는 그 무렵의 자신을 떠올리며 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응답했다.

먼저 작가 박지혜는 선배 홍승혜에게 자신과 작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글의 말미에서 다섯 개의 질문을 보냈고, 홍승혜는 후배의 물음에 따뜻하게 응했다. 또 한 명의 작가 최병식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속의 말을 풀어냈다. 선배 한진수는 후배의 현실적인 토로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위로했다. 신진 기획자로는 천미림과 문선아가 참여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선배에게 다가갔다. 천미림과 선배 정현은 편지글의 형식으로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답했다. 문선아는 선배 김현진에게 구체적인 질문 공세를 펼치며 선배의 노하우를 탐했다. 마지막은 신진비평가 이양현이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전의 평문을 쓰고 선배비평가 문혜진이 메타비평 하는 형식으로 꾸렸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동원했으나, 미술 수업은 결국 '개인 교육'에 가까운 모습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과 질문이 결코 사적이지만은 않다. 비슷한 조건에서 자신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한정된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더 많은 사람과 기회를 공유하지 못한 점은 편집부도 아쉽다. 그러나 또 다른 미술 수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노력하십시오. ● 기획 진행 이가진 기자

special feature I\_park, ji-hye + hong, seung-hye

# 홍승혜

[선배 작가]

**1. 악기 연주자들은 학위 과정을 마친 뒤로 레슨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곡을 해석하는 데 조언을 구하거나 견해를 들어 보는 정도예요. 미술 계통에서 작가에게 필요한 제3의 눈은 무엇을 위함이며, 누구와 어떤 지점을 논해야 할까요?**

평생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고 혼자서 그림을 그렸던 헨리 다거(Henry Dager)가 생각나네요. 다거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의 견해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가 남긴 그림들이 미술계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미술사적으로 거론되지만, 그는 애초에 직업 미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미술이라는 직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숫자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관람객이 필요합니다. 직업은 취미와 달리 어떤 형태로든 유통이 기반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견해에 열려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특별히 대화를 나누고 싶은 관람객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제가 미술적으로 지지하고 인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깨끗한 거울 같은 존재라거나 할까. 작가님이 제게 질문을 던진 것은 저를 지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미술 내적인 부분에서 미술 외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적 문제에서 이상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논할 수 있는 지점은 실로 끝이 없겠지요. 이러한 논의들은 작가를 세상과 관계 맺게 하고, 그들이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될 때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계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선택에 의한 보편성은 검증된 것입니까? 작가는 검증된 사실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의심할 수 있습니까?**

관람객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앞서 말한 것이 작가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성이란 본래 모든 대상에 두루 미치는 성질을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은 바로 그러한 보편성에서 벗어날 때 빛을 발하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선택이라 해서 반드시 검증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들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나 자신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 '특정한' 관람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전파되면 관람객의 숫자는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하는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특수성과 다양성이 본질인 예술에 있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를 의식하는 일은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계는 매우 상대적이고, 그래서 작가는 검증됐다고 여겨지는 사실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특성에 관해 냉정한 반면 한 사람의 작업 세계를 독해할 때 통일된 양식 또는 공통 지류를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왜 필요한가요/필요하지 않은가요?**

좋아하는 작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형태든 색채든 언어든, 또는 태도든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려지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의 세계는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작가를 특징짓는 공통 지류는 필요합니다. 통일된 양식 보다는 공통된 지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작업은 '외모' 보다는 '성격'에 더 큰 비중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을 둘러보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하나의 확고한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작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뀌기 어려운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확고한 성격을 기반으로 '시대의 요구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 관심이 곧 시대의 요구가 되는 날까지 정진하는 것이 작가님의 역할이겠지요. 작가란 결국 자신의 이상향을 끊임없이 무모하게 제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작업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라도 바로 그 성격이 본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4. 저는 행위이든 건강이든, 어떠한 성향까지도 한 번에 몰아쓰거나 치우치게 되면 그 보상으로 반대급부의 일들이 생기는 총량의 법칙을 믿는 편입니다. 생업과 작업 사이에서 지속**

# ARTIST

# 작가로서

## 가능한 균형을 알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거든요.

하하. 오래 살고 싶다는 말씀이 작가님 작업 세계에 가득한 냉소를 다소 희석시키는 것 같아 즐거워했습니다. 저 또한 말씀하신 총량의 법칙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계속 충전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닌 이상 인간의 에너지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작업이 생업이 될 수 있다면 최고의 경지겠으나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죠. 주지하듯 예술은 보편적 가치와 거리가 있을 때 흥미롭고, 그래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직업 미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저 또한 일찌감치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교직에 몸담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 세월 작업과 생업을 병행해온 셈입니다. 맞아요. 아프지 말아야 해요. 질병은 대개 총량의 법칙을 무시했을 때 생겨납니다. 예술에 목숨 걸면 다시는 예술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속 불가능해지는 거죠. 생업이 필요불가결하다면, 그러한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주제 파악, 자기도취, 그리고 자족과 긍정 같은 생활 태도가 작업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 5. 작가로서 만렘(滿Level)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어떤 자리나 성공의 금전적 조건 말고요.

작가로서 만렘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작가님의 질문지에 이미 명확한 답이 존재하고 있네요. '마르지 않는 호기심', '서 있는 위치의 책임감',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무엇'으로 충만한 지금, 여기가 작가로서의 최상의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면 삶은 허무해지고, 끝까지 차고 나면 기우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면 흥한 일이 생기는 거죠.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관현악곡 <볼레로>가 생각합니다. 3박자의 느린 춤곡인

홍승혜는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도플, 1986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7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유기적 기하학)을 시점으로 컴퓨터 픽셀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실재 공간의 은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에 재직 중이다.



홍승혜 <점·선·면> 2016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사진 김도균

<볼레로>는 처음에는 고요한 베이스드럼으로 시작하는데, 악기가 하나둘씩 보태지며 단조로운 만치 일정한 속도로 볼륨이 고조되다가 화려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순간 돌연히 끝이 납니다. 이상적인 작가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다 만렘에 도달해 멋지게 막이 내리는. ■